

## [P4-5]

###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영양상태·식이형태 및 식사의 질 평가

정윤미<sup>1</sup>, 김방실<sup>1</sup>, 김수정<sup>1</sup>, 김낙인<sup>2</sup>, 조여원<sup>1,3</sup>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sup>1</sup>, 경희의료원 피부과<sup>2</sup>, 경희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sup>3</sup>

**서론:**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은 의식주 생활의 서구화, 산업화, 공해 등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발생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병인자로서 식이 인자는 아직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과 영양상태 및 식품섭취 상태 파악과 함께 적절한 의학영양 관리의 지표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조사와 기호도 및 빈도조사를 실시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영양상태와 식이형태 및 식사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진단받은 40명(남 23명, 여 17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식품섭취를 기록법(Food record)으로 조사하였고,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DDS (Dietary Diversity Score), MBS (Meal Balance Score), DVS (Dietary Variety Score), DMGFV (식품군별 섭취패턴), DQI (Diet Quality Index, 한국인 영양권장량 7차 개정안,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에 의하여 Rath E. Patterson의 DQI를 수정)를 조사하였다. 식품 기호도 조사는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싫음, 매우 싫음의 5-likert scale로 평가하였고, 빈도조사는 월간 섭취횟수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0±4.3세, 신장은 남 172.9±6.2, 여 158.0±4.9cm, 체중은 남 69.9±13.9, 여 57.0±8.0kg, BMI는 남 23.3±3.4, 여 22.8±2.6로 조사되었다. 식이조사에서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는 1860.0±521.0kcal로 RDA의 96.3±38.2%에 해당하였고, 단백질은 RDA의 108.7±34.1%를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sub>1</sub>, 나이아신의 섭취는 권장량을 상회하였으나 비타민 B<sub>2</sub>, 비타민 A, 엽산, 칼슘, 철분, 아연의 섭취는 권장량에 미달하였다. 지방섭취는 열량의 24.9%를 차지하였으며, n-6/n-3 지방산의 비율은 10.8±6.2, P:M:S 비율은 1:1.6:1.5로 조사되어 n-3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식사의 질 평가에서 DDS는 아침 1.9±1.1점, 점심 2.3±0.9점, 저녁 2.4±0.6점으로 아침을 가장 소홀히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MBS는 6.6±1.4점, DVS는 9.0±2.9점으로 나타나 식사의 균형성과 다양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DMGFV는 01101 17명(42.5%), 01111 10명(25%), 11111 6명(15%), 11101 6명(15%), 00101 1명(2.5%)으로 유제품과 과일을 섭취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DQI는 평균 8.0±2.0점으로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0.4±0.8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나타냈고, 칼슘 섭취에서 1.6±0.9점으로 가장 나쁜 점수를 나타냈다. 기호도 조사 결과 육류군(3.9±1.1), 패스트푸드군(3.9±0.9), 과일군(3.9±1.0)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콩류군(3.1±1.3), 어유군(3.2±1.0), 채소군(3.3±1.0)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섭취빈도 조사 결과 채소군(12.2±14.3), 유제품군(12.0±14.0), 곡류군(9.8±8.8회/mon) 순으로 섭취빈도가 높았고, 어유군(2.5±3.8), 육류군(3.9±4.8), 과일군(3.9±7.5회/mon)에서 섭취빈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결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균형적이고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하여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개인별 식이적·영양적 문제를 파악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는 의학영양 관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